



군종주보

2019년 11월 24일(제956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상시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는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가”

달력으로 12월이 다가왔고,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죽음 직전 십자가 위에서 2명의 강도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자라며 다른 사람들을 병에서 치유하고 악마로부터 구원해 주더니, 왜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않고 이러고 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를 꾸짖으며, 우리는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도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 이 둘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명은 회개하였고, 한 명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평판이 좋은 한 친구를 끔찍이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무엇을 잘못된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싫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심하게는 그 친구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풀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미워하는 마음은 더 커졌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 친구를 왜 미워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찾아낸 답은 친구가 하는 일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 친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이 싫어서 친구까지도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을 찾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모욕한 강도처럼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가 싫어진 이유를 찾고 나서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자 신기하게도 그 친구에 대한 미움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교회의 마지막 주간, 올 한해 있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신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활짝 웃으시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홍승진(베드로) 신부
백두산(21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2사무 5,1-3

회 답 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 시

콜로 1,12-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복 음

루카 23,35ㄴ-43

영 성 제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시임 안나



성인명: 이시임 안나 (李時壬 Anna)

신분: 양반, 과부, 순교자

활동연도: 1782-1816년

1782년 충청도 덕산의 높은 피(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에 있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시임(李時壬) 안나는 나이가 들어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다. 1827년의 정해박해 때 체포되어 8년 뒤 전주 옥에서 사망한 이성지 요한이 그녀의 오빠이다.

이 안나는 재색을 겸비한 처녀로 교리 실천에 뛰어난 열성을 보였다. 또 일찍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동정녀 공동체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때, 성이 박씨(朴氏)인 한 교우 뱃사공이 이 안나를 그 공동체까지 데려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뱃사공은 그녀와 함께 있게 되자 마음이 달라져 강제로 그녀와 혼인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 종약이가 태어나기에 이르렀다. 이후 그녀의 남편은 몇 해 안 되어 사망하였고, 그녀는 어린 종약이를 혼자 길러야만 하였다.

과부가 된 다음에도 이 안나는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신자들이 모여 사는 진보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포면 포산리) 교우촌으로 가서 살았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1815년 을해박해를 겪게 되었다. 포졸들에게 체포된 이 안나는 먼저 안동으로 끌려가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대구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고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였다. 그녀는 아들 종약이가 자신의 품에서 죽는 괴로움 속에서도, 또한 여러 차례의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결코 신앙심을 잃지 않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대구 감사의 사형 선고문을 받고서도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다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야 임금의 재가를 얻었다. 이때 대구 감사는 끝까지 신앙을 증언한 신자들을 형장으로 끌어내 마지막으로 배교를 종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 안나의 답변은 이러하였다.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저희를 부르시면서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시는데, 어떻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이 안나는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34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

"베룩,
먹구름이 몰려와도.

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이
질퍽한 길에
힘에 부친다 하여도.

나를 지켜주는
나의 아이가 있으니,
나,
기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상화이야기



살바토르 문디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는 라틴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다. 본 그림을 주제로 한 도상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손은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왼손에는 동그란 구(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다)를 들고 계시는 형식으로 주로 그려져 있다. 동그란 구는 투명한 유리구 혹은 불투명한 물질의 구이거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곤 하였다.

여기선 왼손의 동그란 구는 지구, 혹은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데, 왼손에 구를 들고 계심으로 해서 전세계의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심판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맷시의 살바토르 문디는 조금 특이한 편인데, 예수님의 왼편에 들려진 동구란 구는 유리구처럼 생겼고, 그 안에 지상의 풍경으로 보이는 것처럼 산과 들, 도시, 바다, 해와 달이 모두 그려져 있다. 동구란 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지상의 일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것 같은 묘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퀸텐 맷시스, 1520년대 제작

나무 위 유화, 72.9 × 50.2cm

그로스베니 미술관, 영국 제스터

구를 둘러싼 금색의 띠가 교차하는 중앙 윗부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망토를 여미고 있는 장신구 하단 왼편에는 이브를 창조하시는 하느님이, 하단 오른편에는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그리고 상단에는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천사들에 둘러싸이신 성모자님이 그려져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왕 대축일: 강월 박원재 신부

◆ 교구장 동정

- 프란치스코 교황님 일본 방문에 따른
일본 주교회의의 한국 주교단 초청 참석
때·곳: 11월 24일(주일)~26일(화), 일본 도쿄
- 참사회의
때·곳: 11월 27일(수) 11:00, 교구청 회의실

◆ 국장회의

때·곳: 11월 26일(화) 15:00, 교구청 회의실

◆ 잇숨 성가대 창립 20주년 기념 및 성탄축하 음악회

때·곳: 12월 14일(토) 19: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후방 어디라도 찾아가는 잇숨 성가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탄축하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주문의 :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